

임희남 육상 30년 숙원품다

(광주시청)

“100m 10초 34벽 돌파... 한국신기록 깰것” 내달 4일 전국선수권 포상금 1억 ‘희망질주’

한국 육상의 30년 숙원, 100m 한국신기록 10초 34 돌파에 제도 전 한다.

그 주인공은 단거리 기대주 임희남(25·광주시청·사진). 그가 기록 경신을 위해 내달 4일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100m 출발선에 선다.

국가대표 임희남은 현재 태릉선수촌에서 컨디션 조절에 한창이다. 자신의 최고 기록은 작년에 세운 10초 42.

한국기록엔 0.08초 뒤지는 기록으로 국내 육상계에선 임희남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이유는 임희남이 공식기록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한국기록을 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7월 일본 남부그랑프리대회에서 10초 29를 뒀던 적이 있다. 하지만 뒷발톱 풍속이 기준(초속 2m)을 초과한 2.1m로

부는 바람에 공식기록으로 남지 못했다. 또 올 1월 자메이카 전훈에서도 한국기록엔 조금 못미치는 10초 36까지 달렸지만 마찬가지로 풍속 때문에 참고기록으로만 남게 됐다.

임희남으로선 공식기록 여부 보다 기록 달성 경험이 더욱 자신감을 갖고 뛰도록 하는 ‘활력소’가 되고있다.

결국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의 잠재된 돌파력이 이번 대회에서 30년 숙원을 푸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최근 외국 육상 전문가들을 초청, ‘히딩크 프로젝트’로 국내 육상계에 대변화를 꾀하고 있어 임희남의 기록 단축 기반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주변의 큰 기대에도 불구하고 임희남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임희남은 20일 광주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현재 특

별히 아프거나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훈련 과정에서 몸이 조금 무거운 편이다”고 현재의 컨디션을 밝혔다.

사실 임희남은 국내 대회보다는 국제대회에서 기록 단축에 도전하고 싶어했다. 아무래도 심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당분간 해외대회 출전 계획이 없어 자연스럽게 국내 대회에 기대를 걸게 된 것이다.

현재 100m 한국기록은 지난 1979년 서말구 선수가 고지대 멕시코시티에서 세운 기록 10초 34이며 세계기록은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에서 자메이카 우사인 볼트가 세운 9초 58이다.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감독은 “희남이의 기록 달성 능력은 충분하다. 하지만 주위에서 지나친 관심을 갖다 보면 컨디션 조절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지금은 희남이가 출가분한 기분으로 뛸 수 있도록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마음 속으로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한다.

한편 대한육상경기연맹은 100m 한국신기록 달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기록 돌파 선수에게 1억원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해당 선수의 감독에게도 5천만원 상당까지 내걸었다.

한국육상의 희망을 안고 달리는 임희남이 100m 신기록과 함께 1억원의 상금을 동시에 거머쥌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서원기자 swseo@kwangju.co.kr



LPGA 무대 또 일낸다

(오지영)

21일부터 코닝 클래식 마지막 대회

오지영·신지애·위성미 우승 사냥

18일(이하 한국시간)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사이베이스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한 오지영(21)이 2주 연속 우승에 도전장을 던졌다.

오지영은 21일부터 미국 뉴욕주 코닝의 코닝골프장(파72·6천 223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코닝클래식에 출전한다. 사이베이스 대회 우승으로 세계 랭킹도 53위에서 25위로 경총 뛰어오른 오지영은 상승세를 살려 개인 통산 3승째를 거두겠다는 각오다. 오지영은 대회 시작 전 공식 인터뷰에서 “지난주 느낌도 좋았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다. 꼭 다시 우승을 하고 싶다”면서 “전체적으로 코스가 짧아 파5홀에서 버디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파3도 마찬가지”라고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1979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2005년 김지민(29), 2006년 한희원(31·필라델피아), 2007년 김영(29) 등 한국 선수들이 대체로 좋은 성적을 냈다. 지난해에도 우승은 리타 린들리(미국)가 했지만 장정(29·기업은행)이 연장전 끝에 준우승을 차지했고 김미현(32·KTF), 유선영(23·휴온스)이 공동 3위를 차지하는 등 강세는 계속

됐다.

오지영은 공식 인터뷰에서 “코스가 한국과 비슷해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대회는 상급 랭킹 상위 30위까지 선수 가운데 28명이 나오고 세계 랭킹 20위 이내 선수 17명이 출전하는 등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는 나이지 않지만 상급 랭킹 1위 크리스티 커(미국), 3위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등이 우승 후보로 거론된다. 오지영은 커, 안젤라 스탠퍼드(미국)와 함께 1.2라운드를 치른다. 신인왕 부문 1.2위 신지애(21·미래에셋)와 위성미(20·나이키골프)도 나란히 출전한다. 첫 우승에 도전하는 위성미는 공식 인터뷰에서 “파5 홀에서 버디 기회를 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린에 쉽지 않기 때문에 퍼트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열리고 있는 LPGA 대회를 가장 오래 후원해온 코닝이 경제적인 이유로 후원을 중단하면서 이 대회는 올해가 마지막이 됐다. 같은 기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는 미국 텍사스주 어빙 포시즌스 TPC(파70·7천166야드)에서 HP 바이رن널스 챔피언십이 열린다.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로는 나상욱(26·타이틀리스트), 앤서니 김(24·나이키골프), 위창수(37), 양용은(37·이상 테일러메이드), 뉴질랜드 교포 이진명(19), 재미교포 오승준(27)이 출전한다.

PGA 인터넷 홈페이지는 이번 주 우승 가능성 랭킹 4위에 나상욱을 올려놓았다. 나상욱은 올해 5차례 10위 안에 들어 톱10 부문 공동 3위에 올라 있고 평균 타수에서도 69.83타로 7위를 달리는 등 안정적인 기량을 뽐내고 있다.

/연합뉴스



(신지애)

서희경 “첫상대 이보리 만만찮네”

21일 두산매치플레이 챔피언십 64강 격돌

21일부터 강원도 춘천 라데나 골프장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대진표가 결정됐다.

20일 프로암 대회에 앞서 열린 대진 추첨식에서 이번 시즌 상급 랭킹 1위 서희경(23·하이트)은 이보리(26·베호건·현대백화점)와 64강전에서 맞붙게 됐다.

지난해 상급 순위 상위 30위 등 32명이 상대 선수를 뽑는 방식으로 열린 이날 추첨식에서 2008년 우승자 김보경(23·던롭스릭스)은 김소영(22·김영주골프), 김하늘(21·코오롱엘로드)은 이현주(21·동아회원권)와 1회전을 치르게 됐다.

이보리는 지난해 이 대회 32강에서 주미리(22), 16강에서는 유소연(19·하이마트)

을 물리치는 등 매치플레이에 강한 면을 보여 서희경으로서도 첫 판부터 힘든 상대를 만난 셈이다.

이밖 최혜용(19·LIG)은 장은비(20·동아회원권), 안선주(22·하이마트)는 정재은(20·하나은행)과 첫 경기를 갖고 홍란(23·

먼싱웨어)은 신인 이선화(20·호반건설)를 상대한다. 올 시즌 신인왕 부문 1위 안신애(19·푸마)는 오재아(20·하이마트), 2위 양수진(18·넵스)은 함영애(22)와 1회전을 치르게 됐다. 두산중공업이 주최하고 KLPGA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21일부터 4일간 Xports, J골프,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tt 미디어가 오후 1시부터 생중계한다.

16강전(청원고 : 세광고)(12:00·MBC ESPN) (군산상고 : 용마고)(15:30·MBC ESPN)

▲2009 프로야구(SK : 삼성)(18:10·KBS N스포츠) (허어로드 : 한화)(18:15·SBS스포츠) (롯데 : 두산)(18:15·Xports) (LG : KIA)(18:20·MBC ESPN)



(서희경)

이승엽 8호 홈런...4경기 연속 안타

이승엽(33·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시즌 8호 홈런을 쏘아 올렸다.

이승엽은 20일 롯데캐피탈에서 열린 롯데캐피탈 야구 시즌 2차전에서 2회초 1사 후 첫 타석에서 니혼햄 오른손 선발 투수 브라이언 스위니의 바깥쪽 체인지업을 끌어당겨 오른쪽 펜스를 넘어가는 선제 솔로포를 터뜨렸다.

지난 8일 주니치 드래곤스와 경기에서 시즌 7번째 대포를 때려낸 뒤 12일 만에 나온 홈런이다. 타점은 시즌 19개째다.

인터리그 시작 2경기 만에 첫 홈런을 터뜨린 이승엽은 통산 세 번째 교류전 홈런왕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다. 이승엽은 2005년과 2006년 각각 12개, 16개의 홈런을 터뜨려 인터리그 홈런왕을 2년 연속 차지했다.

전날 좌중간을 깨뜨리는 2루타를 때려낸 이승엽은 시원한 홈런으로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다.

/연합뉴스

‘최악피칭’ 박찬호 결국 선발탈락

들쭉날쭉한 투구로 안정감을 주지 못했던 박찬호(36·필라델피아 필리스)가 결국 선발 로테이션에서 탈락했다.

미국프로야구 필라델피아 구단은 20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박찬호 대신 J.A. 햄이 5 선발투수로 가세해 24일 뉴욕 양키스와 경기’에 등판한다. 박찬호는 21일부터 불펜에 대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찬호는 “선발 보직을 잃어 안타깝다. 불펜에서 잘 이어 던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간 계투가 쉽지 않지만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좋은 기억이 있고 팀에서도 내게 불펜에서 더 많은 기회를 하고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즌 직전 선발투수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선발 진입을 놓고 경쟁을 치러야 했던 스프링캠프에서처럼 부담을 느꼈다”는 박찬호는 “주위에서 계속 선발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물어오던 탓에 압박을 받았다. 선발투수로 재미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찬호는 올 시즌 8경기 중 7게임에 선발로 등판, 1승1패 평균자책점 7.08로 좋지 않았다. 13일 ‘진정’ 다저스와 경기에서 6이닝 동안 2점만 주는 호투로 5전 6기 끝에 첫 승리를 신고했지만 18일 워싱턴과 경기에서 1⅓이닝 동안 5점을 주는 최악의 투구로 고개를 떨구었다.

/연합뉴스